



자살취약계층의 심리, 보도의 왜곡성, 위험성이 보도규제에 미치는 영향 - 제3자 효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Mediation Effect of the Third Person Effect among Psychological Factors, Distortion, Riskiness Factors and the Intention of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저자 (Authors)	한택수, 유현재 Han, Taeksoo, Yu, Hyunjae
출처 (Source)	보건사회연구 36(4) , 2016.12, 398-430 (33 pag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4) , 2016.12, 398-430 (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93751
APA Style	한택수, 유현재 (2016). 자살취약계층의 심리, 보도의 왜곡성, 위험성이 보도규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6(4), 398-430.
이용정보 (Accessed)	서강대학교 163.***.1.208 2017/03/18 20: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자살취약계층의 심리, 보도의 왜곡성, 위험성이 보도규제에 미치는 영향: 제3자 효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택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현재*
(서강대학교)

본고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538명의 10대,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등의 심리적 변인과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자살관련보도의 규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자살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제3자 효과를 측정할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 차이는 제3자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과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제3자 효과가 매개하는지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언론의 왜곡된 자살보도와 그에 대한 자살보도규제 변인이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었다. 건강 관련 정책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살보도의 10대, 20대, 30대 수용자는 왜곡된 자살보도에 자신보다 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적 편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자살보도로부터 받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그에 따르는 실질적 보도규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요 용어: 자살보도,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제3자 효과, 사회적 거리감, 매개효과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자의 2014년 석사학위논문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 및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보도 규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 일부를 수정 및 재구성한 연구임.

* 교신저자: 유현재, 서강대학교(bus89@nate.com)

■ 투고일: 2016.8.4 ■ 수정일: 2016.12.12 ■ 게재확정일: 2016.12.14

I. 서론

2014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는 13,836명, 10만 명당 자살자는 27.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독보적 1위이며 2010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오르는 결과이다(OECD, 2016). 1992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한 자살률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 금융 사태를 겪으며 크게 늘어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통칭되는 2008년의 미국 주택대출 시장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 직후인 2009년에 대폭 증가했다(통계청, 2015). 객관적인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갈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타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높아지기만 하는 현실이다(진재현, 고혜연, 2013). 특히 한국인의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5)에서는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에서 4위, 20~30대의 사망원인 1위, 수년간 10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바, 10대, 20대, 30대가 자살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자살이라는 이슈를 대할 때 지나치게 상세한 방법, 현장의 사진, 사용한 도구와 장소에 초점을 맞추기에 자살보도를 접하는 이들이 관련 정보에 노출되도록 돕는 무책임한 일이 일어난다. 알베르 카뮈(1955)가 자살은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이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회피이기에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살보도가 세상을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인 것이다. 뉴스란 전문 언론기관에서 훈련받은 기자가 취재한 사회의 면면에서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 매체에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며, 이것이 저널리즘 행위의 핵심 이기에(김경희, 2013), 무분별한 자살보도는 뉴스의 가치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자살보도 행태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2013년에 제정하였으나, 자살보도를 제한하는 강제적 조항이 없기에 자살보도는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의 도덕적 윤리에 좌지우지 되곤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뛰어넘는 정부적 차원의 보도규제가 자살취약계층인 10대, 20대, 30대의 자살 노출 위험성을 낮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미디어의 자살보도를 접한 수신자들이 자신보다는 지인이나 타인 등의 3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적 편향을 보이기에 더욱 자살보도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미디어의 보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수반되어야 사회 전체와 구성원들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선 라디오, 버스 쉼터 공익광고, '괜찮나?'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단체(시, 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도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법제처, 2016). 문제는 실효성으로, 자살예방 활동들이 체계적 전략에 의해 집행되었는지, 실제로 다수의 공중에게 효과적인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현대인들과 떼놓을 수 없는 미디어의 보도 행태에서 잘못된 점을 짚고 전사회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결여되어있기에, 자살보도의 규제와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본 연구는 언론의 무분별한 자살보도에 노출되는 자살취약계층이 일으키는 제3자 효과를 고찰하며 자살취약계층의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와 자살보도의 왜곡성 변인과 자살보도의 위험성 변인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였을 때 자살보도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자살취약계층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살보도가 왜곡되고 위험하다고 판단할수록 자신보다 타인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지각하며, 자살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스트리아에서 무분별한 자살보도를 규제하여 지하철 자살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 사례(한국교육방송공사, 2013)와 같이 자살보도의 규제가 베르테르 효과를 감소시키고, 파파게노 효과를 증가시켜 한국 사회의 자살률 감소에 일조 할 것이라고 본다.

II. 문헌고찰

1. 자살 실태 및 보도

자살은 사회 전체의 화두로써, 고차원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다(박상철, 2011). 보건복지부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였으며, 2003~2007년까지의 10만 명당 평균 자살자 23.6명을 2013년까지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하였다. 그러나 자살예방백서2015 (보건복지부,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사망자는 2012년에 28.1명, 2013년엔 28.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함께 공시된 ‘자살보도권고기준’은 제정 사후 연구들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현재와 송지은(2012)은 2011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인터넷 신문과 전통적 신문에서 집행된 자살 관련 기사를 분석해 두 매체 모두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하는 경우가 적음을 입증했다. 이하나와 안순태(2013)는 2008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5대 언론사(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된 자살예방뉴스 428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 생물학적 원인으로 삼는 기사 등이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독자들 간의 거리감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자살예방뉴스에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살 미수자”로 칭해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등의 부정적 낙인이 가속화되어 자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혀졌다(이하나, 안순태, 2013).

WHO가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취지의 ‘2013년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04년 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이 새로 제정되었다(김희영, 2013). 그 내용은 자살보도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의 자제 및 선정적 표현 피하기, 자살과 관련한 상세 내용 최소화, 유가족 등 주변 사람 배려하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 피하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 않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알리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할 것의 9개 원칙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학계의 자살보도 문제점을 짚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새로운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의 세세한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김병철(2007)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3대 일간지, KBS, MBC, SBS의 3대 지상파 방송의 자살보도에서 사용된 어휘, 핵심어, 연어 등을 분석해 자살이라는 어휘의 높은 사용빈도, 투신, 동반자살 등, 자살 방법과 관련한 핵심어들이 모방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3대 일간지와 3대 지상파 방송의 자살보도가 지나치게 상세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형민, 이민아(2009)가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의 자살보도를 내용분석한 결과는 전체 자살 기사 중 자살 방법을 명시한 기사가 57%로 분석되어 김병철(2007)의 연구를 뒷받침했다. 이어 김병철(2010)은 종합 일간지의 자살 기사 1,690건, 3대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858건의 기사,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 상담실의 3,41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끼치는 세 가지 영향을 밝혀내었다. 첫째, 종합 일간지의 자살보도는 잠재적 자살자의 상담 사례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지상파 방송의 자살보도는 잠재적 자살자의 상담 건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둘째, 상담자의 43.1%가 자살자의 행위에 공감을 표출하였으며, 7.1%는 자살 충동을 표출해 자살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살보도가 나타내는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에 잠재적 자살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김은이, 송민호, 김용준(2015)은 2013년 1월 7일~2014년 12월 28일까지 보도된 10개 종합일간지 472건의 자살 기사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 87.5%, 자살장소에 대한 정보 94.9%, 자살이유에 대한 정보가 88.8%의 기사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살관련 보도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배준성과 허태균(2010)은 자살보도를 접하고 자살을 긍정적으로 여긴 사람들 가운데 실제 자살 시도자가 54.2%, 자살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 자살 시도자가 62.5%라고 분석했기에 사회학습이론의 영향으로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에 이바지한다고 말한다.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감정적 공감을 일으켜 자살에 동조하는 자살보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 칭하며, 배준성과 허태균(2010)은 Phillips(1974)를 통해 베르테르 효과가 명명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출간된 이후, 극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착용한 복장과 시행한 방법을 모방해 자살하는 사례가 전 유럽에서 증가했고, 이는 당시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과 베르테르가 극 중 겪는 정서적 갈등이 당대 유럽의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의 자살에 동조적 태도를 갖도록 하였기 때문이다(김종오, 2010). 현대의 베르테르 효과는 언론의 자살보도가 대중들의 심리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일어나며, 텔런트 최진실, 안재환의 자살 등이 구체적인 자살방법에 대한 참고가 되어, 많은 모방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김종오, 이대성, 2009).

반면 언론의 자살 방지 역할과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매스미디어 모방이론(mass media imitation theory)이 활용되며, 이는 언론의 공신력 있는 보도가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함을 밝힌다(Sisask & Värnik, 2012). 최근엔 베르테르 효과와 반대로 언론의 분별력 있는 자살보도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파파게노 효과가 논의되고 있다. Niederkrotenthaler 등(2010)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라는 극 중 주인공이 요정들의 도움으로 연인을 잃은 슬픔이 초래하는 죽음의 유혹을 이겨낸 일화를 통해 파파게노 효과가 유래되었으며,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 자살보도는 자살 방지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실험으로 파파게노 효과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호주에서 통계적 수치만으로 자살보도를 구성하였을 때, 감정적 어휘를 사용한 자살보도가 주로 배포되었을 때보다 자살률이 감소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Thomas와 동료들(2011)은 개인이 자살의 유혹을 극복한 사례를 자살보도에 삽입했을 경우 자살률이 감소한다고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모방 자살은 언론 보도로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기에 언론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 더욱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Sisask & Värnik, 2012).

2. 심리적 변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자살 관련 연구들에서 밝혀진 변인 중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를 심리적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대부분 부정적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김민경, 2012; 송영이, 송로사, 2015).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서 건설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신영훈, 박선영, 2016).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우울은 자살 관련 연구들에서 자주 측정된 심리적 변인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생각에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가 많다(강희양, 양경화, 2013; 고기숙, 이지숙, 2013; 김민경, 2012; 신경란, 홍창희, 2013; 최인재, 2010). 강희양과 양경화(2013)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연구할 때, 우울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변인이라고 강조하며 우울을 완화하는 실천적 개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자대학생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있어서 남자대학생보다 취약함을 보여, 우울이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민경, 2012).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인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수의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우울이 문제해결능력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써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신경란, 홍창희, 2013). 최인재(2010)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삼았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과 자아존중감, 우울이 높은 관련을 보이기에 보다 세밀한 관심과 중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매스미디어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제3자 효과는 크게 일어난다(Perloff, 1989; Cohen & Davis, 1991). Perloff(1989)는 레바논 전쟁에 대해 중립의 내용을 담은 뉴스를 친팔레스타인 집단, 중립 집단, 친이스라엘 집단에게 보여주며 각 집단의 인식을 살폈다. 친팔레스타인 집단은 친이스라엘집단이 편파적, 친이스라엘집단은 친팔레스타인 집단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보도라 하였는데, 이는 집단의 관여도에 영향을 받아 뉴스의 영향력이 달리 평가된 것이다. Cohen과 Davis(1991)는 정치광고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격당하는 광고가 본인에게 영향이 없지만 다른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며 관여도가 높게 나타날 때, 시각적 편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3. 언론의 선정적 자살보도와 위험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3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편집이나 시청률에 의식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 시청자의 술한 질타를 받았다(박신영, 2011). 박신영(2011)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의 왜곡된 경쟁이 선정적인 흥미 제공, 경쟁주의, 승자독식 문화 등의 부정적 인식 확산에 일조하기에 프로그램을 개선 및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비단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문 보도도 포함한다. 조수선(2005)은 인터넷 기사의 열독형태가 ‘훑어보기’, ‘제목만 읽기’ 등으로 보이며 이용자가 선호도를 보이는 헤드라인에는 선정성을 띤 제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양진웅과 김경호(2006)는 네이버 뉴스, 미디어 다음의 기사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말초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기사 표제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왜곡된 단어까지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유현재와 조은선(2012)이 5대 연장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문화일보)와 5대 대안지(노컷뉴스, 쿠키뉴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의 642

건 자살관련 기사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사들에 선정적인 표현들이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발견되었다. 나아가 유현재와 조은선(2012)의 연구 결과는 분석된 642건의 자살관련 기사가 2004년 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을 밝히며 권고안을 준수하거나 언론보도를 규제해야함을 제시한다.

미디어를 통한 자살보도는 자살자극에 취약한 개인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 모방자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정승민, 박영주, 2009). 모방자살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 의해 베르테르 효과가 공론화 되어 자살보도가 자살사건에 원인제공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Stack, 2005).

4. 제3자 효과

Davison(1983)이 최초로 정립한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타인들(제3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이수범, 김동우, 2009). 백혜진과 이해규(2013)는 Davison이 1957년 신문이 서독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던 당시, 기자들로부터 “신문 사설은 나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나, 일반 신문 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서 제3자 효과의 단서를 얻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제3자 효과의 연구는 Gunther(1991)의 연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백인들의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였고 정작 흑인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장교들이 흑인 병사들의 동요를 두려워해 군대를 철수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제3자란 미디어의 메시지가 ‘나(me)’ 또는 ‘너(you)’보다 ‘타인들(they)’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며(Bryant & Oliver, 2009),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유홍식, 2011). 첫째,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이라는 타인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 때문이다(Perloff, 2002). 둘째, 귀인이론(attribution)에 근거한 ‘자기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이 원인이며 자기위주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은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타인들은 자신보다 메시지 의도 파악 능력이 뒤처지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한군데, 차동

필(2002)은 제3자 효과란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메시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지각하는 데에 차이(discrepancy)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Price와 Tewksbury(1996)는 지각적 차원이란 제3자에게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인지하는 성향이라 하였다. 이러한 지각적 편향은 메시지 규제와 검열 등의 행동적 요소로 나타나며, 제3자 효과 발생의 원인은 메시지 처리의 지각적 차원(perceptual component), 수용자의 행동적 차원(behavioral component)으로 구분된다고 김봉철 등(2011)이 밝히고 있다.

5. 제3자 효과의 사회적 거리감

제3자 효과의 지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부분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다(박형민, 2011).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폄하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에 개인의 우월감이 증대되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김인숙, 2009). Cohen 등(1988)은 지리적, 물리적 거리감에 의해 제3자 효과가 나타난다 하였고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동료 학생들보다 학교가 속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는 사람들이 타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은 우월하며, 타집단이 자신이 속한 집단보다 못하다고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는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편향이라고 설명된다(Eveland 등, 1999). 반면, 타인들을 막연한 대중으로 기술할 경우에는 이 집단들이 거의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지각할 수 있기에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제3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Peiser & Peter, 2000).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집단을 정확한 표적 집단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타인이나 타인 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중요하다(김인숙, 2009).

6.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언론에서 기사화 한 자살보도에 대해 자살취약계층이 느꼈을 지각적 편향을 알아본다. 또한 이런 무분별한 기사들이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살 보도의 규제 강화로 매개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관련 연구들(김봉철 등, 2011; 김인숙, 2009; 박신영, 2011; 송경희, 이수영, 1998; 유홍식, 2011; 이수범, 김동우, 2009)에서 제3자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가 제3자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확인해 <연구문제 1>을 제시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강석화, 나동석, 2013; 강희양, 양경화, 2013; 고기숙, 이지숙, 2013; 김민경, 2012; 송영이, 송로사, 2015; 신영훈, 박선영, 2016; 최인재, 2010, 홍점동, 양난미, 2013)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보도에 대한 인식 측정에 주요 변인으로 활용된 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이 자살보도라는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문제 2>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자살보도로부터 제3자 효과가 발생해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보도가 규제되어야 한다고 설문 응답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논리 하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자살보도의 왜곡성, 위험성 등을 측정한 관련 연구들(강석화, 나동석, 2013; 강희양, 양경화, 2013; 고기숙, 이지숙, 2013; 김민경, 2012; 박신영, 2011; 송영이, 송로사, 2015; 신영훈, 박선영, 2016; 유홍식, 2011; 정승민, 박영주, 2009; 최인재, 2010, 홍점동, 양난미, 2013)을 토대로,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살보도취약계층(10대~30대)의 선정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적 편향은 사회적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자살보도취약계층(10대~30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선정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적 편향에 따라 수준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자살보도취약계층(10대~30대)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는 선정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를 통해 자살보도를 규제해야한다고 매개될 것인가?
- 연구문제 4. 자살보도의 왜곡성 변인과 자살보도의 위험성 변인은 선정적인 자살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를 통해 자살보도를 규제해야한다고 매개될 것인가?

III. 연구방법

1. 설문응답자 및 자료수집

상기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를 사용해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중간에 자살보도 및 신문사별 ‘자살보도권고기준’ 미준수 현황 등을 기재해 조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링크를 공유하였으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설문지 링크를 전달해 데스크탑, 랩탑, 스마트폰 등에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지인에게 설문을 전달 및 공유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대상자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일반인으로 한정했다. 모집단을 한정한 이유는 각 연령별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5).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 잠재적 자살취약계층인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야 데이터와 자살보도규제 간의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2013년 11월 11일에서 11월 18일까지 시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은 총 538부였으며, 답변을 완결하지 않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응답지 61부를 제외, 총 설문지의 88.6%인 477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SPSS 18.00 통계패키지의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1) 심리적변인

가) 자아존중감

자살 보도의 지각적 편향 설명에 빈번히 사용된 심리적변인들 가운데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인지적/감정적)를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저하 여부는 자

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가 되어 자살생각에 직,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인재, 2010; 홍정돔, 양난미, 2013). 최인재(2010)는 청소년의 저하된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매개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말한다. 홍정돔과 양난미(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밝혀졌는데, 이는 20대의 군인들을 설문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유현재, 조은선(2013)이 번안한대로 사용하였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자부심을 느낄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자신이 쓸모없음을 느낀다’, ‘나는 최소한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으면 한다’,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의 총 10개 문항 중 부정적인 2번, 5번, 6번, 9번의 4개 문항을 역채점하여 분석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34이다.

나) 우울

강석화와 나동석(2013)은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삼아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우울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울은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며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기숙, 이지숙, 2013).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인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수의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우울이 문제해결능력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써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신경란, 홍창희, 2013). 본 연구에서는 우울 척도를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개발한 CES-D 20문항(전경구, 최상진, 양병찬, 2001)이 이은희와 조운자(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대로 사용하였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먹고 싶지 않았다(입맛이 없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다른 사람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느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을 느꼈다,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행복했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말수가 줄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생활이 즐거웠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슬픔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의 총 20개 문항 가운데 긍정적인 4개의 문항(4번, 8번, 12번, 16번)을 역채점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40이다.

다) 관여도

이수범과 김동우(2009)는 건강 관련 메시지와 자신의 관계를 파악하는 제3자 효과와 제1자 효과(역 제3자 효과)를 측정하였다. 다이어트/비만 예방 메시지에 높은 관여도를 보인 집단에선 제3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낮은 관여도를 보인 집단에서 제3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 관련 메시지를 다이어트/비만 예방 광고의 긍정적 메시지, 패스트푸드 광고의 부정적 메시지로 분류하여 관여도 수준에 따라 제3자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Mutz(1989)가 관여도를 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으로 분류한 관점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관여도가 매개변인인 제3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장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Zaichkowsky(1985)의 PII(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를 활용해 관여도를 측정하였다. PII는 총 8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졌고, '자살보도는 나에게 중요하다, '자살보도는 나에게 관련이 있다, '자살보도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자살보도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자살보도를 나는 필요로 한다'의 인지적 차원 문항, '자살보도는 나를 흥분시킨다, '자살보도는 나에게 매력적이다, '자살보도는 나에게 매혹적이다'의 감정적 차원의 문항들이 있어 세세한 하위 차원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Zaichkowsky(1985)의 선행연구와 같이 관여도가 인지적, 감정적 관여도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해 요인분석을 실시, 인지적 관여도가 공통요인으로써 .566에서 .874의 적재량과 3.215의 아이겐벨류, 감정적 관여도가 .821에서 .928의 적재량과 2.814의 아이겐벨류를 나타냈다. 공통요인의 아이겐벨류가 1 이상이면 분석할만한 공통요인으로 간주하기에 하위변인으로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위차원인 인지적 관여도와 감정적 관여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59, .836이었고 상위차원인 관여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89이다.

2)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양진웅과 김경호(2006)의 연구는 인터넷 기사에서 왜곡된 단어들 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유현재, 조은선(2012))이 5대 연장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문화일보)와 5대 대안지(노컷뉴스, 쿠키뉴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의 642건 자살관련 기사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사들에 선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들이 제목과 기사 본문에서 발견되었다. Stack(2000)은 자살한 사람, 사실사건인지, 보도 분량, 보도 기간과 횟수, 시청자 연령과 청취 분위기, 자살시도에 그쳤는지 자살하였는지의 여부, 보도 수단 등의 자살보도 외적수단에 따라서 모방자살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고, 유명인사들의 자살보도가 14.3배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선정적인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은 보도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변인으로 측정하여 선정적인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이 제3자 효과, 자살보도규제 등의 타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살보도의 왜곡성 척도는 박신영(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왜곡된 경쟁에 대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살보도는 자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자살보도는 관련 내용을 왜곡되게 묘사하고 있다,' '자살보도는 사람들의 죽음을 흥밋거리로 다루고 있다'의 문항 3개로 구성하였다. 자살보도의 위험성 척도는 정승민과 박영주(2009)의 연구에서 자살위험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살보도를 보고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 '지난 1년간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의 문항 2개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이 하위변인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베리맥스 회전 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 왜곡성 변인이 .767에서 .805의 적재량과 1.836의 아이겐벨류를, 위험성 변인이 .883에서 .891의 적재량, 1.594의 아이겐벨류를 보여 각각의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하위차원의 왜곡성 변인이 .681, 위험성 변인이 .727, 상위차원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612를 나타냈다.

나. 종속변인

1) 자살보도규제 변인

매스미디어의 메시지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내재하고 있는 메시지의 규제 방안을 밝히고 있다. Gunther(1995)는 포르노그래피의 제3자 효과가 클수록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정책을 옹호한다고 밝혔으며, Rojas 등(1996)은 TV 폭력물이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제3자 효과가 매개변인을 통제 했음에도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인숙(2009)은 '개입주의(paternalism)'가 제3자 효과와 미디어 규제를 잘 설명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개입주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할 때 일어난다(Golan & Banning, 2008). 추가적으로 송경희와 이수영(1998)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TV 폭력물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메시지가 지각될수록 관련된 내용의 규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즉,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들에게 부정적 메시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제3자 효과와 미디어 규제 간 정적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살보도규제 척도는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우선 김인숙(2009)의 연구에서 활용된 3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변형하여 '언론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이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의 문항들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유홍식(2011)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자살보도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자살보도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한다', '자살보도를 막기 위해 자살보도를 규제해야한다'의 자살보도규제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80이다.

다. 매개변인

1) 제3자 효과

김인숙(2009)의 연구에서 제3자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3개의 문항들을 적합하게

수정하여 제3자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개 문항은 ‘자살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 보도는 귀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살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 보도는 귀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살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한 보도는 타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구성했다. 신뢰도 측정 결과, .886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를 나타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신뢰도계수를 활용해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Nunnally(1978)가 제안한 신뢰성 기준 0.6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 변인으로서의 활용성을 확인했다. 이어 독립변수인 심리적변인의 하위차원 변인들(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의 하위차원 변인들(왜곡성, 위험성)과 매개변인 제3자 효과, 종속변인 보도규제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는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각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로 연구문제 1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높고 낮은 수준이 제3자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다. 세 번째,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 왜곡성, 위험성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종속변인인 보도규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추정하여 매개효과가 추정되었을 때, Sobel(1982)의 Z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IV. 분석결과

1.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변인의 하위변인인 우울과 관여도-왜곡성과 위험성, 왜곡성과 위험성-자살보도규제가 정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왜곡성과 위험성, 우울과 관여도-제3자 효과, 왜곡성과 위험성-제3자 효과, 제3자 효과-자살보도규제의 관계가 1%의 유의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변인들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고, 제3자 효과가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을 자살보도규제 변인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8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모든 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왜곡성과 위험성	제3자 효과	규제
자아존중감	1					
우울	-.632**	1				
관여도	-.179**	.278**	1			
왜곡성과 위험성	-.251**	.367**	.285**	1		
제3자 효과	.094*	-.177**	-.196**	-.247**	1	
규제	.030	.052	-.012	.442**	-.217**	1

*p<.05, **p<.01, ***p<.001

2. 제3자 효과의 지각적 편향

기존의 제3자 효과 연구(김봉철, 2010; 김인숙, 2009; 박신영, 2011; 송경희, 이수영, 1998; 유홍식, 2011; 이수범, 김동우, 2009; DeLorme, Huh, & Reid, 2006; Duck & Mullin, 1995, Jensen & Hurley, 2005)에서 제3자 효과를 측정할 때 활용한 것과 같이

‘자신이 받은 영향에서 타인이 받은 영향을 빼며, 계산값이 음수로 나올 경우, 제3자 효과가 측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측정되며 결과를 <표 3>에서 알아보았다.

표 2. 제3자 효과의 지각적 편향

제3자 효과(부정)	변인	평균	평균차	t값
자신-타인	자신	2.76	-0.5	-10.594***
	타인	3.26		
자신-지인	자신	2.76	-0.29	-7.396***
	지인	3.05		
지인-타인	지인	3.05	-0.21	-5.510***
	타인	3.26		

*p<.05, **p<.01, ***p<.001

자신과 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의 평균차(MD=-.28)와 지인과 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의 평균차(MD=-.20)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의 평균차(MD=-.48)는 확대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우울 수준 차이에 따른 제3자 효과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M=3.82, SD=.59127)를 기준으로 높고 낮은 집단을 구분해 독립변인으로 삼고,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 자신과 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우울 역시 평균점수(M=2.36, SD=.71250)를 중심으로 높은 우울과 낮은 우울의 두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삼은 후,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 자신과 지인에게 미치는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에 대한 자신과 타인,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t-test 결과

집단	비교 대상	N	M	SD	t	p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248	-.5000	1.09840	.117	.907
	낮은 집단	229	-.4891	.93006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248	-.87821	1.38102	-1.094	.275
	낮은 집단	229	-.84061	1.71640		
우울	높은 집단	239	-.5021	.90226	.157	.875
	낮은 집단	238	-.4874	1.112783		
우울	높은 집단	239	-.3305	.85696	.995	.32
	낮은 집단	238	-.2521	.85406		

*p<.05, **p<.01, ***p<.001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높고 낮은 수준에 따른 자신과 타인,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5000, SD=1.09840)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평균(M=-.4891, SD=.93006)에 비해서 .1 가량 낮지만, 유의한 통계값을 보이지 않는다(t=.117, p>.05). 이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87821, SD=1.38102)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84061, SD=1.7164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t=-1.094, p>.05). 우울에 있어서는 낮은 우울도를 보인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4874, SD=1.112783)이 높은 우울도를 보인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5021, SD=.90226)보다 .013 이상 높은 평균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측정되었다(t=.157, p>.05).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에 대한 평균에서도 낮은 우울을 가진 집단의 평균(M=-.2521, SD=.85406)이 높은 우울 집단의 평균(M=-.3305, SD=.85696)보다 .07 이상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995, p>.05). 이 모든 값들은 유의한 p값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높고 낮은 수준은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와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음수로 나오는 이유는 문항들 간에 감하는 과정을 통해 제3자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4. 자살취약계층의 심리적변인과 자살보도규제에서 제3자 효과의 매개여부

심리적변인의 하위차원인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 그리고 자살보도의 왜곡성, 위험성이 종속변인인 보도규제 변인과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는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며, 매개효과가 추정되었을 경우 Sobel(1982)의 Z검증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회귀분석은 우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으로 검증한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으로 검증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이때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잠정적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β 값, 즉 영향력이 2단계의 회귀식 결과보다 3단계에서 더 작은 값을 보여야한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된다. 완전매개란 단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경우를 뜻한다. 불완전매개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고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장경문, 2005; 유지선, 2004).

우선 심리적변인의 하위변인들인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제3자 효과 변인이 각각의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매개하는지 측정해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였으나($\beta=.094, p<.05$), 2단계 회귀분석에서 보도규제 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해($\beta=.030, p>.05$), 매개효과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심리적변인의 두 번째 하위차원 변인인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해 제3자 효과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값을 보였지만($\beta=-.177, p<.01$) 2단계 회귀분석에서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아($\beta=.052, p>.05$) 매개효과를 측정할 수 없었다. 세 번째 하위변인 인지적 관여도를 독립변인,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하였지만($\beta=-.210, p<.01$), 보도규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2단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값이 산출되지 않아 영향

력을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022, p>.05$). 네 번째 하위 차원 감정적 관여도를 독립변인,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은 유의미하였고($\beta=-.102, p<.05$), 보도규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아($\beta=-.075, p>.05$) 3단계 회귀분석의 실행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심리적변인의 하위차원 변인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 등의 모든 변인들은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매개효과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즉 심리적변인의 하위차원 변인들은 제3자 효과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보도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와 자살보도규제 사이 제3자 효과의 매개여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R ²	F
자아존중감	제3자 효과	.248	.121	.094*	.009	4.191*
자아존중감	자살보도규제	.038	.059	.030	.001	.415
우울	제3자 효과	-.389	.099	-.177***	.031	15.347***
우울	자살보도규제	.056	.049	.052	.003	1.275
인지적 관여도	제3자 효과	-.419	.090	-.210***	.044	21.864***
인지적 관여도	자살보도규제	.021	.045	.022	.000	.225
감정적 관여도	제3자 효과	-.239	.107	-.102*	.010	5.011*
감정적 관여도	자살보도규제	-.086	.052	-.075	.006	2.685

* $p<.05$, ** $p<.01$, *** $p<.001$

5.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을 자살보도규제와 매개하는 제3자 효과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자살보도규제변인에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며, 매개효과가 추정되었을 때, Sobel(1982)의 Z검증을 활용해 매개효과를 최종 확인한다. 우선 왜곡성을 독립변인, 제3자 효과를 매개변인, 자살보도규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왜곡성이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끼쳤고($\beta=-.207, p<.001$), 2단계 분석에서 왜곡성이 자살보도규제에 영향력을 미

쳐($\beta=.569, p<.001$) 왜곡성과 제3자 효과가 동시에 자살보도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왜곡성이 자살보도규제에 끼치는 영향력($\beta=.548, p<.001$)이 2단계 회귀식의 영향력($\beta=.570, p<.001$)보다 작았고, 제3자 효과의 자살보도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103, p<.01$). 따라서 불완전매개 효과가 일어난다고 추정된 바,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왜곡성과 자살보도규제의 관계에서 제3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Z=-4.40, p<.001$) 독립변인 왜곡성과 종속변인 자살보도규제 사이에서 제3자 효과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을 독립변인, 제3자 효과(부정)를 매개변인, 자살보도규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 위험성이 제3자 효과(부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미함($\beta=-.161, p<.001$)을 확인해 2단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보도 규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beta=.017, p>.05$)을 보였기에 추후 3단계 분석을 실행할 수 없었다.

표 5.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과 자살보도규제에서 제3자 효과의 매개여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R ²	F	Sobel test
왜곡성	제3자 효과	-.396	.086	-.207***	.043	21.360***	
왜곡성	자살보도규제	.532	.035	.569***	.324	227.370***	-4.40***
왜곡성	자살보도규제	.511	.036	.548***	.331	118.814***	
제3자 효과		-.051	.019	-.103**			
위험성	제3자 효과	-.282	.079	-.161***	.026	12.682***	X
위험성	자살보도규제	.015	.039	.017	.000	.144	

* $p<.05$, ** $p<.01$, *** $p<.001$

V. 결론

Ratzan 등(1996)이 주창한 헬스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건강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들의 병리적 현상인 정신건강 질환 중 하나인 자살이 공공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은 헬스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건강 정책 형성의 일환이다. 허나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자칫 허울 뿐인 정책이 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자살보도 규제의 필요성을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해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향후 자살보도 행태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신과 사회적인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제3자 효과를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이 위반된 보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제3자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에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제3자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타인과 지인에게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위반한 보도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가 나와 좀 더 먼 타인이 지인보다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지각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높고 낮은 수준이 자신-타인의 제3자 효과, 자신-지인의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M=3.82$, $SD=.59127$)과 우울의 평균치($M=2.36$, $SD=.71250$)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우울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독립변인,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기록한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5000$, $SD=1.09840$)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기록한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4891$, $SD=.93006$)에 비해 0.01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117$, $p>.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87821$, $SD=1.38102$)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84061$, $SD=1.71640$)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94$, $p>.05$). 이어 우울도가 낮은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4874$, $SD=1.112783$)은 높은 우울도를 보인 집단의 자신과 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5021$, $SD=.90226$)보다 0.013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t=.157$, $p>.05$). 높은 우울도를 기록한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3305$, $SD=.85696$)은 낮은 우울도를 기록한 집단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 평균($M=-.2521$, $SD=.85406$)보다 0.07 이상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t=.995$, $p>.05$). 다시 말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높고 낮은 수준의 정도는 자신과 타인이나 자신과 지인의 제3자 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제3자 효과가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를 자살보도규제 변인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확인에는 Baron과 Kenny(1986)가 고안한 3단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Sobel(1982)이 고안한 Sobel Test의 Z검증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단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에 걸쳐 확인하는 이유는 단계적 회귀분석은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차원, Sobel Test의 Z검증이 최종검증 차원이기 때문이다. 3단계에 걸친 단계적 회귀분석은 우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1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에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2단계를 실시한다. 1, 2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침과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 회귀식보다 작아야 매개효과가 추정된다. 이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거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경우엔 완전매개효과가 추정,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모두 종속변인에 영향력을 끼치면 불완전매개효과가 추정된다고 본다.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는 제3자 효과와 관계없이 자살보도규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존중감, 우울, 인지적 관여도, 감정적 관여도 등의 변인들은 1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쳤기에 2단계 회귀분석을 이어서 실시했으나 자살보도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왜곡성이 제3자 효과와 매개되어 자살보도규제 변인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왜곡성과 종속변인 자살보도규제 사이에서 매개변인 제3자 효과의 불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위험성을 독립변인으로 삼아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검증되어 2단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지만 자살보도규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매개효과를 측정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3자 효과가 매개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 같은 자살보도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 자살보도를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자살보도의 위험성이 자살보도 규제와 관계없다고 나타났지만, 보도의 왜곡이 심할수록 제3자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취약계층은 자신이 자살보도에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타인,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들일수록 왜곡된 자살 보도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자살보도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자살보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형성할 때, 그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지키지 않은 기사들에 대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주요했다고 본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에 제한을 두는 것이기에 언론 본질의 역할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0만 명당 자살자가 27.3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보도되고 있는 선정적인 자살 관련 기사들이 베르테르 효과나 모방 자살 등을 증가시킬 수 있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 이외에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나 하자면, 베르테르 효과 등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이나 상담이다. 자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대중 뿐 아니라, 그 감정에 몰입하여 순간의 상황을 대면하고 이해해야 하는 해당 연예인이기도 하다. 유명인사가 자살을 하면 모방자살이 14.3배 높아진다고 한다(Stack, 2000). 그래서 1차적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에게 자살예방 차원의 교육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면 연예인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나 모방자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자살보도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들이 자살이라는 심각한 이슈를 대하는 태도를 면밀히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져본다. 후속되는 관련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하는 AMO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조방정식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독립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우선 측정한 후,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위반한 자살보도들을 보여주고 보도의 왜곡성, 위험성, 제3자 효과, 보도규제 등과 관련한 항목을 측정 한 부분이다. 이는 자칫 특정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시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기존 연구들(강석화, 나동석, 2013; 강희양, 양경화, 2013; 고기숙, 이지숙, 2013; 김민경, 2012; 송영이, 송로사, 2015; 신영훈, 박선영, 2016; 최인재, 2010, 흥점동, 양난미, 2013)에서 측정된 바에 의하면 자살보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때, 언제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 이였기에 응답값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으리라 사료하고 진행한 바이다.

제3자 효과의 사회적 거리감 측정에도 보다 정확한 집단으로 조작적 정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가 자신-지인-타인으로 집단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했지만, 김인숙(2009)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집단을 정확한 표적 집단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했음에도 보도 규제의 필요성이 규명되었음은 자살자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공중에게 행여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도 내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베르테르 효과보다 파파게노 효과와 같은 긍정적 효과로 자살보도가 자제되어야 하는 점이다. 1980년대 오스트리아의 게르노트 소벡 박사는 지하철 자살과 관련한 자국 언론의 상세한 보도가 지하철 자살을 부추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언론사에 자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해 모든 언론사가 이를 지켰기에 지하철 자살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대다수 언론 매체에서는 자살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2004년에 선포되었고 2013년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선포되었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자살률이 하락하였다는(통계청, 2015) 희소식이 들렸으나, 여전히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심심치 않게 들리는 유명인들의 자살 뉴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에 앞으로의 자살 문제가 걱정되는 바이다. 향후 이와 같이 자살보도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어 자살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택수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에서 재직, 서강대학교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연구원을 겸임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정책홍보,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헬스커뮤니케이션, 자살보도규제, 사회보장정책 등이다.
(E-mail: wabstraction@gmail.com)

유현재는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헬스커뮤니케이션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학과장, 서강대학교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 보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융합연구 수행이다.
(E-mail: bus89@nate.com)

참고문헌

- 강석화, 나동석.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pp.49-71.
- 강희양, 양경화.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우울과 자기개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pp.539-554.
- 고기숙, 이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5, pp.131-156.
- 김경희. (2013). 트위터의 뉴스미디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7(4), pp.7-44.
- 김민경. (2012).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 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7(1), pp.61-83.
- 김병철. (2007).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에 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 pp.252-275.
- 김병철. (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1), pp.41-63.
- 김봉철, 최명일, 장지영. (2011). 의료사고 보도와 제3자 효과. *홍보학연구*, 17(1), pp.39-69.
- 김은이, 송민호, 김용준. (2015).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자살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pp.94-122.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의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태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pp.5-36.
- 김종오. (2010).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6(3), pp.37-67.
- 김종오, 이대성. (2009). 자살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6, pp.261-268.
- 김희영. (2013. 9. 11). 보건복지부,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전달. *기자협회보*, <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1843>에서 2016. 7. 인출.
- 박민서, 유명직. (2013). 자살 예방정책의 형성과정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12(2), pp.77-102.

- 박상철. (2011).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18(2), pp.347-375.
- 박신영. (2011).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25(6), pp.290-331.
- 박형민, 이민아. (2009).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6(2), pp.179-195.
- 백혜진, 이해규. (2013).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수용자, 미디어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법제처. (20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0516,20110330\)](http://www.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0516,20110330))에서 2016.7. 인출.
- 보건복지부. (2015). 2015 자살예방백서. 서울: 중앙자살예방센터.
- 송경희, 이수영. (1998). TV폭력과 제3자 효과: TV폭력에 대한 프로듀서와 학부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0, pp.229-256.
- 송영이, 송로사. (2015).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영성,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pp.307-334.
- 신경란, 홍창희. (2013). 대학생의 지각된 문제해결능력과 자살사고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pp.389-407.
- 신영훈, 박선영. (2016).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토. *청소년복지연구*, 18(1), pp.235-259.
- 양진웅, 김경호.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섹션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다음과 네이버 뉴스탑(news-top)에 노출된 연예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4-34.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현재, 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인터넷 신문(대안지)과 전통적 신문(연장지)의 차이 비교. *보건사회연구*, 32(2), pp.427-467.
- 유현재, 조은선. (2013).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 연구.

광고학연구, 24(3), pp.173-196.

- 유홍식. (2011).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3자 편향적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1(2), pp.333-364.
- 이수범, 김동우. (2009). 건강 관련 메시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홍보학연구*, 13(2), pp.5-37.
- 이은희, 조운자. (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16, pp.105-143.
- 이하나, 안순태. (2013). 자살예방뉴스의 낙인(stigma)요소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7(4), pp.27-47.
- 장경문.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pp.185-196.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pp.59-76.
- 정승민, 박영주. (2009).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조건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2), pp.153-182.
- 조수선. (2005). 온라인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개요 효과. *한국언론학보*, 49(2), pp.5-32.
- 진재현, 고혜연. (2013).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195, pp.141-154.
- 최인재.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이존증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pp.105-130.
- 통계청. (2015). 2014년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방송공사. (2013). 다큐프라임-33분마다 떠나는 사람들. <http://www.ebs.co.kr/tv/show?prodId=348&lectId=10147239>.
- 한균태, 차동필. (2002). 언론사 세무조사 보도와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16(1), pp.429-462.
- 홍점동, 양난미. (2013).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이존증감, 소외감, 욕구좌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pp.1423-1441.
- 한택수. (2014).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심리적 변인 및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보도 규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 3자 효과의 긍정적, 부정적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서강대학교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1173.
- Bryant, J., & Oliver, M. B. (Eds.). (2009).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3rd ed. New York: Taylor & Francis US.
- Camus, A. (1992). *시지프스의 신화*. (민희식, 역). 서울: 육문사. (원서출판 1955).
- Cohen, J., & Davis, R. G. (1991). Third-person effects and the differential impact in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8(4), pp.680-688.
- Cohen, J., Mutz, D., Price, V., & Gunther, A. (1988).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52(2), pp.161-173.
-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1), pp.1-15.
- DeLorme, D. E., Huh, J., & Reid, L. N. (2006). Perceived Effects of Direct-to-Consumer (DTC) Prescription Drug Advertising on Self and Others: A Third-Person Effect Study of Older Consumers. *Journal of Advertising*, 35(3), pp.47-65.
- Duck, J. M., & Mullin, B. A. (1995). The perceived impact of the mass media: Reconsidering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pp.77-93.
- Eveland, W., Nathanson, A., Detenber, B., & McLeod, D. M. (1999). Rethinking the social distance corollary - Perceived likelihood of exposure and the third-person perception. *Communication Research*, 26(3), pp.275-302.
- Golan, G. J., & Banning, S. A. (2008). Exploring a Link Between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Beneficial Ads and Social Expectation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2), pp.208-224.
- Gunther, A. C. (1991). What we think others think cause and consequence in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18(3), pp.355-372.

- Gunther, A. C. (1995). Overrating the X Rating: The Third 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1), pp.27-38.
- Jensen, J. D., & Hurley, R. J. (2005). Third person effects and the environment: Social distance, social desirability, and presumed behavior. *Journal of Communication*, 55(2), pp.242-256.
- Mutz, D. C. (1989).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Third person effects and the public expression of opin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 pp.3-23.
- Niederkrotenthaler, T., Voracek, M., Herberth, A., Till, B., Strauss, M., Etzersdorfer, E., ... & Sonneck, G. (2010). Role of media reports in completed and prevented suicide: Werther v. Papageno effec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7(3), pp.234-243.
- Nunnally.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ECD. (2016). "Suicides" in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206.
- Paek, H. J., Lee, A. L., Jeong, S. H., Wang, J., & Dutta, M. J. (2010). The emerging landscape of health communication in asia: Theoretical contributions, methodological questions, and applied collaborations. *Health Communication*, 25, pp.552-559.
- Peiser, W., & Peter, J. (2000). Third-person perception of television-viewing behavior. *Journal of Communication*, 50(1), pp.25-43.
- Perloff, R. M. (1989). Ego-involvement and the third person effect of televised news coverage. *Communication Research*, 16(2), pp.236-262.
- Perloff, R. M. (2002). The third-person effect.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 pp.489-506.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340-354.

- Price, V., & Tewksbury, D. (1996). Measuring the third-person effect of news: The impact of question order, contrast and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pp.120-14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1.
- Ratzan, S. C., Payne, J. G., & Bishop, C. (1996). The status and scope of health communic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 pp.25-41.
- Rojas, H., Shah, D. V., & Faber, R. J. (1996). For the good of others: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pp.163-186.
- Sisask, M., & Värnik, A. (2012). Media roles in suicide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9(1), pp.123-13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pp.290-312.
-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4), pp.957-971.
- Stack, S. (2003). Suicide in the Media: A Quantitative Review of Studies Based on Nonfictional Storie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5(2), pp.121-133.
- Thomas, K., Chang, S. S., & Gunnell, D. (2011). Suicide epidemics: the impact of newly emerging methods on overall suicide rates-a time trends study. *BMC public health*, 11(1), p.314.
- Zaichkowsky, J. L. (1985).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pp.341-352.

The Mediation Effect of the Third Person Effect among Psychological Factors, Distortion, Riskiness Factors and the Intention of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Han, Taeksoo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Yu, Hyunjae

(Sogang University)

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2.0 tha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regulate suicide news repor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hird person eff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not only 538 respondent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involvement (cognitive and emotional), the effect of distortion and riskiness suicide reports on the third-person effect but restricting suicide news report factor's presuming and confirming processes as a dependent variable. Furthermore, self-esteem and depression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levels of high and low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third-person effect, mediation factor itself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sume the mediation effect and Sobel-test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eventual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the respondents showed perceived media bias toward distorted suicide news reports so that they thought the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was necessa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on health related policy with sticking to the perspective of health communication.

Keywords: Suicide News Report, 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the Third-Person Effect, Social Distance Corollary, Mediation Process